

김 주 희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청소년기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가정교육전공
채 진 선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청소년기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

김 주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가정교육전공
채 진 선

인 준 서

채진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부모 애착에 따라 연령, 성별, 경제수준, 부모 교육수준, 부모 연령, 모 취업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성 친구 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372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하였으며 통계적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성별, 경제 수준, 부모의 연령, 부모 교육 수준,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애착 수준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아버지에게 여학생은 어머니에게 애착의 점수가 높아 성차이가 있었다. 또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애착지각점수가 높았다. 부모의 연령이 젊을수록, 생활 수준이 좋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수록 애착의 지각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과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부모 애착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애착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먼저 자율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취할수록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되고 부모애착 하위요인인 신뢰감이 높았으며, 부모 양육태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자율적, 수용적, 통제적 태도 모두 부모애착 하위요인 중 소

외감 형성에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 애착은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감은 이성 친구 애착 하위요인인 의존과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 부모와의 신뢰감 형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이성 친구 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갖는 변인은 부모 애착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연령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부모애착에 차이를 나타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부모애착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애착 하위요인 신뢰감은 이성 친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배경,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 중에서 이성 친구 애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부모애착으로 나타나 부모에 대한 애착형성이 청소년의 올바른 이성교제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안정적인 애착의 형성이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올바른 이성 교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검증함으로써, 현재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애착	
1) 애착의 이론	8
2) 청소년기의 애착	9
3)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2
2. 양육태도와 애착	
1) 부모의 양육태도	15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17
3. 이성교제	
1) 청소년의 이성교제	19
2) 애착과 이성교제	23

Ⅲ. 연구방법	28
1. 연구의 개념적 틀	28
2. 연구문제	29
3. 연구의 가설	30
4. 연구의 대상	31
5. 측정도구	31
6.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37
7. 자료 분석	38
Ⅳ. 연구결과	3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9
2.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부모애착 차이검증	42
3.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애착에 미치는 영향	51
4. 부모와의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	57
5.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62
Ⅴ. 결론 및 제언	72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표 목차

<표3-1> IPPA-R의 구성	33
<표3-2> PBI의 구성	35
<표3-3> 이성 친구 애착척도의 구성	37
<표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1
<표4-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42
<표4-3>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44
<표4-4>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46
<표4-5> 부모의 연령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47
<표4-6>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48
<표4-7>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49
<표4-8> 부모양육태도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51

<표4-9> 부모양육태도가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53
<표4-10> 부모양육태도가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54
<표4-11>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의존에 미치는 영향	58
<표4-12>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안정에 미치는 영향	60
<표4-13 >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애착의 상관관계	63
<표4-14> 이성 애착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64
<표4-15> 이성 애착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66
<표4-16> 이성 애착 친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68
< 표4-17>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70

그림목차

[그림3-1] 연구의 개념적 틀	28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심리적·정서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므로 자기 역할에 대한 갈등, 현실과 이상의 심한 불균형, 성적 욕망과 사회적 금지 사이에서 갈등을 심하게 겪는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적 사고과정이 아직 미숙하고, 대응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 과제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성취하여 주체성을 확립하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와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 안정을 바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하고, 이는 적응의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정유진, 2000). 이처럼 청소년들이 정서적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애정 집단으로서의 가정의 기능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더 중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정의 안정과 지속성은 부모와의 관계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형성은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대인관계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다음 단계로의 적응을 위한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영혜, 2000).

영아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장한 이후까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계속된다는 Bowlby(1969)의 주장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의 애착연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Bowlby(1969)는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이른 애착관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을 발달시키고 이후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원형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최근의 애착연구의 경향은 인생 초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아동기를 넘어서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기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형성은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다음 단계 즉 성인기의 적응을 위한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지적되고 있다. 애착의 내적 표상 모델이 전 생애적으로 계속해서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청소년기에도 애착은 지속되며 또한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인지적-정서적 측면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발달 초기의 애착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전 생애적으로 유지되며, 애착행동은 부모로부터 친구에게로 전이되지만,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적응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년기 동안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갈 때에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녀의 측면에서 부모와의 애착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개념은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계가 아니라 상호 발전적 입장에서 상호자극을 주고받는 쌍방향적 단계이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이진숙, 정혜정, 2004). 이렇게 부모의 양육태도가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아동기뿐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부모와의 관계는 지속되는 것으로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기의 애착발달과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애착관계에 영향을 주는 양육태도는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희영,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애착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이후의 발달 단계에서 이들 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한 양육태도와 애착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녀와 어머니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자녀의 애착대상은 어머니에게 한정되지 않으며,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어머니 못지않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양육방식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애착 유형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와 모를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영아-엄마의 초기 애착의 결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이 형성되고, 이러한 내적 표상은 전 생애를 걸쳐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기 청소년기 이후에는 부모와의 애착이 친밀한 친구애착으로 전환되어 평생 지속되기도 하고,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이성 애착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혜란(2000), 조승희(2003), 한만열(2003)의 연구를 보면 이성교제의 시기가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기의 이성 애착뿐만 아니라 전기 청소년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초기 애착과 관련된 경험의 연속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며, 특히 친구관계나 이성 관계를 경험하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이 수정되고 변화를 겪기도 한다(조영주, 최혜림, 2001). 심수정(2003)은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과도기적 상태로 여러 가지 발달적 위기를 맞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벗

어나 또래와 애착관계, 특히 이성과의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발달상의 변화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Bowlby(1973)의 연구결과에서는 생애 주기적 견해에 의해 애착관계가 아동기, 청년기를 지나 전 생애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에 부모와 어떤 종류의 애착관계를 형성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한 후에 형성하게 되는 이성관계의 양상이 크게 좌우된다. 영아기에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했던 사람은 성인이 된 뒤에, 애정상대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욕구나 자기 개방, 안정감 등을 상대방에게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그러한 욕구나 욕망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와 불안한 애착관계를 형성했던 사람은 자기 행동에 자신이 없고, 애정대상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상대방을 잘 신뢰하지 못하거나 너무 쉽게 신뢰하여 만족스런 애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중술,1994). 이처럼 부모와의 관계가 대인관계, 특히 이성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이 있지만(조영주, 최해림, 2001; 김수경, 2003 ;박선미, 2003), 대학생이나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애착에 영향을 주며 이렇게 형성된 애착은 청소년기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조승희(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성교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83%가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들 중에서도 93%가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이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애착의 중요성을 논하였을 뿐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에 관한 선

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즉,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또래관계와 마찬가지로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2. 용어의 정의

1) 애착

애착 : 특정한 개인에 대한 애정적 유대로서 애착연구의 초기에는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만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개인의 전 생애 동안 어머니 외의 어떤 사람과도 형성할 수 있는 정적 유대를 의미함.

2) 부모애착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을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등 세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의사소통 : 아버지, 어머니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에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에 관련된 내용.

신뢰감 :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나의 판단을 믿어주며 아버지, 어머니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련된 내용.

소외감 :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집이나 학교에서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체 등에 관련된 내용.

3) 양육태도

양육태도 : 양육자가 자녀에 대해서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행동 즉, 훈육, 생활훈련 및 전반적인 자녀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태도.

4) 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적 양육태도, 수용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등 세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자율적 양육태도 : 자녀를 믿고 결정을 따라가려는 부모의 태도.

수용적 양육태도 : 자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 자녀를 믿지 못하고 부모의 의견대로 결정을 내리는 태도.

4) 이성 친구 애착

본 연구에서는 이성 친구 애착을 의존, 안정, 친밀 등 세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이성 친구 의존 : 이성 친구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를 나타낸 요인.

이성 친구 안정 : 상대방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이성 친구 친밀 :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친밀해지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요인.

II. 이론적 배경

1. 애착

1) 애착이론

애착(attachment)이란 용어는 Bowlby(1958)가 영아와 어머니와의 유대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인간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학자들의 관심을 모아왔다(조휘숙 외, 1994, 재인용). Bowlby(1958)는 애착을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행동, 혹은 그 접근이 손상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려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Ainsworth(1969)는 애착을 영아가 특정한 개인에 대해 형성하는 애정적 유대로 정의하였으며, 영아는 애착대상을 심리적인 안정기지(secure base)로 삼아 낯선 상황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노명희, 1995, 재인용).

애착형성에 대한 이론은 크게 정신분석이론, 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 동물생태학적 이론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Freud로 대표되는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어머니가 수유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아의 구강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영아는 어머니에게 애착한다고 하였다. 신Freud학파의 일원인 Erickson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모든 욕구에 일관되게 반응하는 어머니는 자녀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육성한다고 하였다(David R. Shaffer, 송길연 역, 2000).

학습이론에서는 애착행동을 본능적이기보다는 조건화이론에 근거하여

학습된 행동으로 보았다. 즉, 어머니가 유아에게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과 따뜻한 보살핌은 1차적 강화물로 유아의 즐거운 느낌이나 유쾌한 감각과 연합되고, 이러한 긍정적 결과에 대해 어머니 자체가 2차적 강화물이 되어 유아가 어머니에게 애착하게 된다는 것이다(David G. Perry, 최상진, 최순영 역, 1989).

인지발달이론에서는 애착이 유아의 기본적인 인지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즉, 애착을 형성하기에 앞서 유아가 어머니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어머니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대상영속성'을 획득할 때 비로소 어머니에게 안정적으로 애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수정, 최순영, 1995).

동물생태학적 이론에서는 애착을 진화론적 이론에 근거하여 주 양육자에 대한 유아의 애착행동은 유아의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고 불가피하게 진화하여 형성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대표적 동물생태학자인 Bowlby(1969,1973)에 의하면, 유아는 어머니와 계속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생득적 반응을 타고나며 어머니의 주의를 끌기 위해 여러 가지 생득적인 신호들을 표출한다. 성인 또한 유아의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생득적 능력이 있어 유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어머니와 영아가 서로 주고받는 호의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밀착된 애착이 형성된다고 하였다(김수정, 최순영, 1995).

2) 청소년기의 애착

청소년기의 애착은 영유아기의 애착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첫째로 상대적으로 부모의 일방적 권위를 지니는 아동기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며, 둘째로 또래 관계가 점

차 중요해지면서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는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줄 수 있게 된다(심수정, 2003).

위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기의 부모애착은 아동기와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유아기,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기의 애착은 애착행위 그 자체보다는 애착감정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이은경, 1995).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친밀한 애착감정은 언제나 필요로 할 때 부모가 자신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기능적인 면으로,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적절한 애착이 형성되면 자녀의 다른 발달적 특성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청소년들은 그냥 단순히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는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도 건강하다(한상철, 1997).

애착은 청소년이 부모에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행동적인 면을 내포한다. 아동 중기를 넘어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개인의 내적 작업 모델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감, 상호존중감, 유대감을 갖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Armsden & Greenberg, 1987). 즉, 생애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애착은 전 생애적으로 지속되며, 청소년기에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애착감정은 청소년의 복지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도현심, 2000).

Ainsworth와 동료들(1978)은 청소년기 애착관계는 영아기나 아동기와 달리 표면적인 애착행동이 감소하며, 적극적이고 목적적 활동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 특징적이라 했다. 또한 그들은 형식적 조작기로 접어들며 추상화 능력이 생기면서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기초를 확고하게

갖게 되고, 부모와 “목표-수정적 협력관계”를 더 세련되게 다룰 수 있게 된다고 했으며, 이러한 청소년기 애착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여전히 부모나 애착대상은 안전기저(secure base)로 남아있으면서, 스트레스 상황시 애착체계가 재 활성화되어 부모 및 애착대상에게 도움이나 심리적 안정을 구한다고 보았다.

종합해보면 청소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영아기와 유아기의 애착과는 달리 애착대상에 대한 신체적인 접근의 빈도와 강도는 감소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대상을 안전기저로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홍주영, 200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애착에 대한 최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Armsden과 Greenberg(1987)는 16-20세의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척도인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사용하여 부모 및 또래의 애착과 심리적 안녕,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 및 또래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우울, 불안, 죄의식, 분노, 소외, 자기개념의 혼란은 낮게 보고되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홍강의(1984)는 유아기적 대인관계를 정비하는 제 2의 시기로서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기에 경험하는 애착과 분리의 과정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정숙(1994)은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 관계가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유은희(1991)와 이은경(1995)의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들의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의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과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오송희(1999), 청소년의 애착을 질적으로 연구한 이시은(2003),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사회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 이지윤(2000)의 연구가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애착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료애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특히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장휘숙(1997)은 애착을 전 생애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보고 청소년들과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중·고등학교 시기 동안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한편 남녀 모두 연령 증가와 함께 친구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가족보다는 동성이나 이성의 친구와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룩하고 가치체계를 형성하며 삶의 목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애착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이 시기에 부모애착 대신 동료 애착이 증가한다는 경향에 따라 동료 애착의 일환으로서 이성 친구 애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① 연령과 성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과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오송희(1999)에 의하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아버지에 대해 낮은 애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도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애착을 보였다. 이에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애착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치되지 않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김수경(2003)은 대학생의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에서의 성차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강규영(2003)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 아버지 애착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반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시은(2003)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애착관계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와 좀 더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덜 느끼며 여학생의 애착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성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 차이에 관해서는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② 부모의 교육 및 경제수준

오송희(1999)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교육정도에 따라 부 애착과 모 애착은 영향을 받지 않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윤(2000)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온정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애정적인 유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지윤(2000)의 연구에서 애착은 경제적 상, 중, 하류층 각각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이며 그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윤은정(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른 부-모 애착안정성의 차이는 부의 애착안정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의 애착안정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모의 경우 경제수준이 ‘중상’일때 애착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하’일

때 가장 낮은 애착 안정성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이 ‘하’층 보다는 ‘중상’층으로 갈수록 애착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③ 부모의 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오송희(1999)는 부모의 연령에 따른 애착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가 젊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나이가 젊을수록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애착은 더 높다고 보고했다.

이와는 반대로, 이지윤(2000)은 부모의 연령에 따른 애착의 차이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많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태도나 애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④ 어머니의 직업유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애착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양정란(2004)은 어머니가 취업을 하는 경우 아동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아동과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윤미선, 권혁기(2005)도 어머니의 직장 유무에 따른 애착의 차이는 전업주부의 자녀들이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안정된 애착관계는 아동의 신호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취업을 하는 경우 아이와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아이가 보내는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부적절하게 반응하게 되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것이다. 이지윤(2000) 또한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애착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요인은 대체로 일치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2. 양육태도와 애착

1) 부모의 양육태도

인간의 성장과정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을 진단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회문화적 조건, 물리적 조건, 가족 관계, 부모의 영향력, 역할 관계, 부모의 훈련 태도나 통제 양식 등의 요인을 들 수 있고, 그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심리적 요인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모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출생 직후부터 일생을 통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김선옥, 1985)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기 동안 부모와 자녀는 의존하며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지만 청소년기에 접어서면서 자녀들은 부모와의 밀착된 생활에서 서서히 자신을 독립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청소년기 이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드러난다(옥경희, 1999).

Fishbein과 Aizen(1975)은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으로 정의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남상인(1983)은 양육

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자녀의 지적, 정의적 특성은 부모가 어떠한 태도로 키웠느냐 하는 양육 태도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또한 이경민(2005)은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육태도로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모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양육태도란 양육자가 자녀에 대해서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행동 즉, 훈육, 생활훈련 및 전반적인 자녀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태도이다. 다시 말해 부모의 양육태도란 자녀가 성장하면서 습득해야 할 지식, 도덕관, 행동 등에 관해 부모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이에 반응하는 용의성 및 내적 활동성을 말한다(교육학 사전 편찬위원, 1996).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양육방법에 의한 부모의 지도와 통제는 자녀의 성격발달과 사회적 성장 및 심리적 만족과 성숙에 영향을 주며,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진수, 1990).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제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어왔다. Schaefer(1965)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유아기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방법이 성격형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Becker(1964)는 이러한 부모의 행동에 따른 자녀의 영향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양육방법과 자녀의 행동양

식을 규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제한적인 양육방법은 억제된 행동양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허용적인 양육방법은 자유로운 행동을 기르며 온정적인 방법은 자녀에게 활기를 주고 냉담한 양육방법은 위축감을 준다고 했다. 따라서 부모는 충분한 애정을 가지고 자녀의 행동이나 말에 믿음을 갖고 일관성 있게 대해 주어야 학교생활에 있어서나 사회에 나아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게 된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영아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게 되는 가정환경은 영아의 발달을 위한 직접적인 환경이므로, 가정 내에서의 부모-자녀관계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개의 영아는 1세경이 되면 어머니에게 안정된 애착을 보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애착관계에는 개인차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발달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는 애착 관계의 질에 있어서의 개인차의 기원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Bowlby(1969)는 영아가 누구에게 애착해야 할지를 알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며 입양부모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부모와 마찬가지로 애착을 형성하기 때문에 분명히 학습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동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영아는 애착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실제 애착발달은 애착대상과의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아의 애착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인 자녀양육태도에 대하여 오늘날 애착이론가들은 Bowlby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아-어머니 간 애착의 질이 이들 간의 관계의 질을 반영하며 양육의 질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

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은영, 1996 ; 송완주, 1998 ; 이진숙, 2001). 위의 이론들에 따르면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모의 충분하게 좋은 양육은 자녀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존감과 대상관계를 발달시켜 나가게 한다. 반면에 역기능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insecure attachment relationship)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자녀의 부정적인 자기도식과 대상관계의 출현에 크게 기여한다(손석한, 노경선 외, 2001)

어렸을 적의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으로 형성된 애착관계의 질이 전 생애에 걸쳐 인간의 행동이나 관계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이론이 주목을 끌기 시작하면서 애착표상(attachment representation)과 부부관계, 또는 부모자녀관계를 관련지은 연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성인들이 결혼만족도가 높고(유은희, 1991), 아동기에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애착유형이 자녀의 행동문제를 더욱 야기 시킨다는(강차연, 장연집, 1999) 결과가 밝혀졌다. 이처럼 어렸을 때의 애착이란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심리적 발달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적인 면의 발달까지 포함한 전반적 인간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박응임, 1995). 그 동안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형성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간(홍계옥, 1995 ; 조은영, 1996 ; 송완주, 1998 ; 양미경, 1998 ; 이영환, 1999)애착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민감하고 반응적인 어머니의 양육이 애착의 중요 결정자가 되기 때문에 영아와 어머니간의 애착관계는 양육의 질을 반영한다고 하였다(송지연, 1987). 위의 연구들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양육태도나 반응들이 적절할수록 자녀는 어머니에게 신뢰감을 형

성하여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반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애착과 관련되는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서 양육행동이 강조되는 것이다(강미경, 2003).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현주, 1999; 조혜영, 2000 ; 최윤희, 유가효, 2000)가 증가함으로써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애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자율적 태도, 수용적 태도, 통제적 태도)이 애착의 하위요인(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이성교제

1) 청소년의 이성교제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이성과의 사회적 기술 및 대인기술을 발달시킬 뿐 아니라 기존의 가족이나 또래 친구들과는 분리된 관계라는 상황 속에서 성격 특성을 시험해봄으로써 서로 다른 정체성을 발견하고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rikson(1968)은 청년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성과의 낭만적 경험이 정체성과 친밀감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Goff(1990)는 이성교제의 즐거움과 우정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 개인의 즐거움과 우정을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서 찾는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1992)는 이성교제를 '어떤 계약적인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해 위에서 이루어지는 미혼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여 결혼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청소년기 특징의 하나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접근하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발생한다. 이 시기는 2차 특징이 나타나고 이성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는 시기이다(김현옥, 김용미, 2001).

청소년기의 이성교제 시작 시점은 개인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각각의 청소년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성교제에 대한 관념 및 발달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청년 전기(12~15세), 청년 중기(16~18세), 청년 후기(19~22세)의 3단계로 구분되는 바, 각 단계에 따른 이성교제의 관념을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후기 아동기가 막 끝나고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청년 전기에는 아직 이성교제에 대한 낭만적 관계를 수용하지 못하는 시기이다. "청년 전기는 보편적으로 동성 간 정체감과 우정의 시기이다. 10대들은 청년기를 겪어가면서 이성관계가 자신의 인생의 더 큰 부분으로 바뀌어가며 이성교제를 사회적으로 더 많이 수용하게 된다(Hass, 1979)"는 지적은 청년 전기에는 아직 이성교제가 청소년들 사이에 보편화되거나 널리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청년 중기에는 이성교제가 상당히 일반화된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나타나는 이성 관계는 반드시 친밀한 관계는 아니며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다. 즉, 선택된 이성을 좋아하기보다는 자기 앞에 나타나는 이성이나 조금만 관심을 보이는 이성은 무조건 좋아한다. 또한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성교제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흥분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성교제의 유형은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청년 전기에 남녀가 단체로 교제했던 방식은 이 시기에는 점차로 커플끼리의 교제로 전환되며 이성교제의 개념은 단순한 남녀 공동모임이라기보다는 점점 치장에 신경을 쓰며 격식을 갖춘 사고로 전환되어간다. 이 시기에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은 연애의 경험을 가지지만, 형태는 정신적이어서 친구의 기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인과 이성친구의 분화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민영순, 1982).

한편 청소년 전기와 중기의 이성교제는 청소년 후기의 이성교제의 의미와 다르게 구분되기도 한다. 중·고등학교 시기의 이성 친구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며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의미를 갖는 정도에 그치지만, 청소년 후기의 이성 관계는 성적 정체성을 정립하며 배우자를 찾는 탐색과정으로서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박은령, 2000).

성인으로 접어드는 전단계인 청소년 후기에는 초기의 두 발달단계보다는 친밀한 관계로서 이성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친밀한 관계가 아닌 단순한 교제는 아직 이성교제로 수용되지 않는 경향이 농후하다. 청소년 후기의 특징을 열거한다면 성적인 안정을 보이며 자기에 대한 비판력이 증가되며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이성과 동성 친구에게 구하려 하며 이상적인 연인을 찾게 된다. 애정의 대상은 한 사람이 되며 영속적인 이성 관계를 획득하게 된다(민영순, 1982). 청소년들은 발달 시기를 겪을수록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는 증가되고 이것은 가족이라는 보호 장소로부터 유리된 여러 가지 관계와 상황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Hass, 1979).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각 개인에게 더 많은 독립성이 인정되는 만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도 수용되며 교제의 횟수는 훨씬 더 증가된다. 그러나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혜란(2000)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0년대에는 중학생은 이성교제를 거의하고 있지 않았으나 건전

한 이성교제를 원하였고, 90년대에 들어서는 중학생도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성교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점차적으로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조승희(200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성교제를 처음 경험하였다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한만열(2003)의 연구에서도 최초의 이성교제 시기가 초등학교 때였다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성교제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신상필(1989)의 연구를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교제희망으로 인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전기와 중기 때의 이성교제에 대하여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성관계의 발달과정이 청소년층에 속한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교제의 시작 시점에 있거나 자신의 교제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 초기나 중기의 학생들은 부모나 사회로부터 이성교제 자체 또는 이성 파트너와의 친밀감이 부적합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주로 대학생의 연령에 속하는 청년들에게는 부모나 사회가 사회규범에 비해 너무 관대하거나 무관심한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에 의하면 자신의 이성교제 사실을 부모가 인지하는 경우는 남자 중학생은 56.0%, 여자 중학생은 53.8%이고 남자 고등학생은 27%, 여고생은 31%이다(박성정, 1996). 이것은 청소년 중기나 후기로 갈수록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며 부모와의 애착이 또래나 이성파트너로 옮겨갈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부모나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야말로 올바른 이성교제를 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2) 애착과 이성교제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과도기적 상태로 여러 가지 발달적 위기를 맞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또래와 애착관계, 특히 이성과의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발달상의 변화를 보인다(심수정, 2003). Bowlby는 영아기 동안의 부모자녀 애착을 중요시하였는데, 그는 영아기에 맺어진 부모-자녀간의 결속이 그 자녀의 다른 사람에 대한 지향을 형성한다고 믿었다. 즉 영아기의 부모자녀 결속이 영아기 이후의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접근하였고 그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와 친밀한 결속을 형성할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김주희, 강성희, 1993, 재인용).

애착이론은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애착의 주요 동기는 특유하게 선호된 존재와의 친밀한 유지로 파악되는데 친밀함 유지의 대상은 아동기에서는 부모를, 성인기에서는 낭만적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관계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작동 모델을 제공하고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바탕을 제공한다. 더구나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개인적 접촉과 애착은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다. 영아기의 애착유형이 나이와 관계없이 지속되는지의 여부는 아직 일관성 있는 연구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나 영아기의 애착의 특성이 아동기나 성인기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초기 애착유형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지속된다는 결과가 밝혀지기도 했고, 성인애착유형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Collins & Read, 1990 : 박은경, 1992). 이렇게 본다면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한 청소년기에도 유사한 관련이 있음을 가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기에도 그대로 지속되는지, 아니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화되면서 또래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의 논문에서는 청소년기가 진행될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이 점차 또래 또는 이성 파트너에 대한 애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보고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입장이다(오송희, 1999). 또한 청년 초기부터 중기 그리고 후기까지 부모에 대한 자기노출은 감소하고 친구에 대한 자기노출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하미진, 2000).

우선 초기 부모와의 애착이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이성친구나 배우자에 대한 애착과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내적 표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Hazan과 Shaver(1987)는 이성과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성향을 갖는 사람은 불안정한 애착성향을 갖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부모와 좀 더 온정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Feeney와 Noller(1990)는 부모와 만족스러운 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한 유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있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이성 관계에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Goff(1990)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초기 애착 경험이 결혼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안정되게 애착된 부모를 가졌다고 평가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정에서 서로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 유형과 사랑 유형의 상관관계를 측정해 본 결과 안정적 애착 관계 유형은 사랑의 관계를 보다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자신감의 수준도 높았으며, 파트너를 신뢰하는 경향도 높았다. 반면 회피적 애착관계 유형은 항상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음을 못마땅

해 하면서도 친밀성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보이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양가적 애착관계 유형의 경우는 파트너에게 매우 의존적이었으며 사랑에 대한 갈증과 굶주림, 공복감이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한만열, 2003). 성인초기(18~35세)의 주요 발달과업인 이성 친구나 배우자와의 친밀감 형성인 사랑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애착이론에서는 사랑을 전형적인 애착형성과정으로 개념화하였다.(장휘숙, 2002). 일찍이 Hazan과 Shaver(1987)는 Bowlby의 이론에 토대를 두어, 성인의 낭만적 사랑을 애착형성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즉, 이성 친구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다양한 사회·정서적 과정들이 연관된 감정적 유대이고, 생애초기의 주 양육자와 맺은 관계가 이후 관계형성에 비교적 지속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여, 성인기의 이성간의 친밀감 형성을 낭만적 애착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인기에는 생애초기에 부모와 형성한 애착도 중요하지만 애착행동과 관심이 부모로부터 이성으로 향하게 되면서 애착대상의 위계에서 점차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전환을 ‘애착대상의 역전’이라고 하였고, 성인초기에는 대체로 이성친구가 주 애착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강진경, 2001).

그러나 생애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이후에 지속되어 성인기의 이성친구나 배우자에 대한 낭만적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지만, 둘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착은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보살핌을 제공하는 반면에, 이성 친구나 배우자간의 애착은 두 사람간의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보살핌을 주고받는다. 영아는 부모와 애착이 되고 부모를 안전기지로 찾지만 부모는 영아에게 이런 방식으로 애착하지 않는다. 반면에 낭만적 애착 관계에서 각각의 이성 친구와 배우자는 서로 애착하여 보호해주고 안전기지가 된다. 또한 이성 친구나

배우자간의 애착은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착에 비해 성적 특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두 관계 모두가 애착대상과 가까이 잇기를 원하며, 애착대상이 자신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애착대상과 분리 시 불안해하는 것은 공통된 특징이다(Hazan & Shaver, 1987).

애착의 지속성은 국내의 연구에서도 일관성을 보여준다(강진경, 1996; 장미희, 1996; 박의순, 1997; 강진경, 정태연, 2001; 장휘숙, 2002). 부모자녀 간의 애착은 전 생애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사랑의 유형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애착이 전 생애적으로 발달한다.

또한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에 따르면, 낭만적 애착에서 안정형으로 분류된 성인은 어머니가 편안하고 유머 있고 자신감 있고 태평하고 인내심이 있었으며, 신뢰롭고 솔직하였다고 기억하였고, 현재도 어머니가 필요할 때 있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적이고 따뜻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낭만적 애착에서 불안정형인 회피형으로 분류된 성인의 경우, 아버지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기억하였고, 어머니가 표현적이고 민감하고 보살펴주었다고 기억하는 정도가 안정형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 다른 불안정형인 양가형으로 분류된 성인의 경우 어머니가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간섭이 많았다고 기억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애중인 이성 친구의 애착 유형과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관계를 탐색한 Collins와 Read(1990)는 아버지를 따뜻하고 반응적이었다고 지각한 여학생들이 친밀하고 의존적인 남성과 연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어머니를 비밀관적이라고

지각한 남학생들은 불안한 유형의 여성과 연애를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이 성인기의 이성 관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내적 실행 모델이라는 기제를 사용하여 애착의 연속성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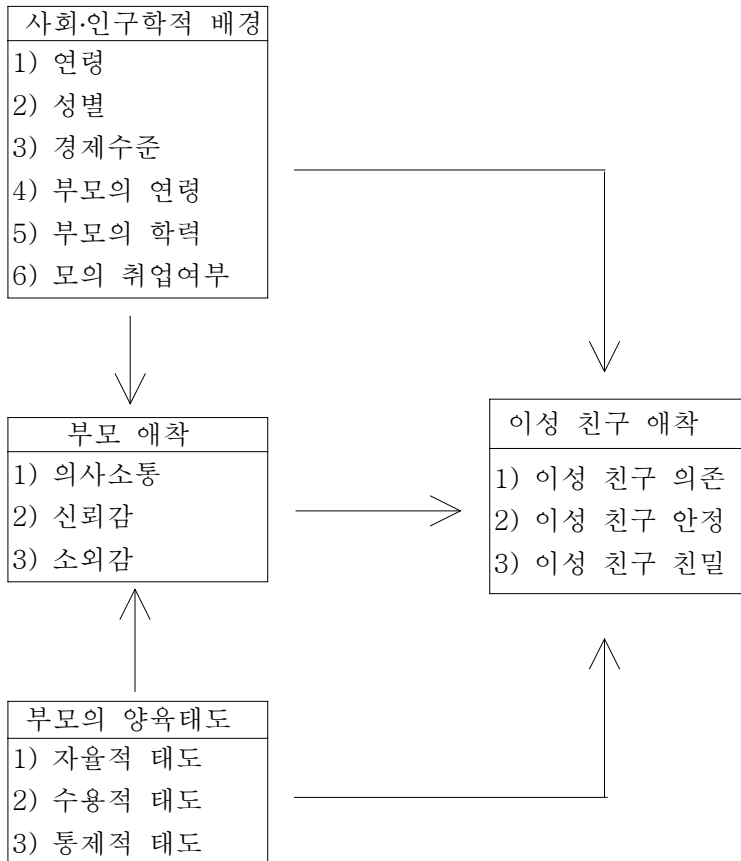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은희와 박성연(1989)은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모자간의 애착과 아들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이들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경(1996)은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인 사랑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강진경(2001)은 또 다른 연구에서 성인들이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 성향을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법을 통해 연구한 결과, 현재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은 아동기 어머니에 대해 지니고 있는 내적 표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주와 최해림(200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애착과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종합해 보면, 성인기의 이성 친구나 배우자에 대한 애착은 성인기에 사랑하는 이성 친구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 성인기의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은 생애초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과는 상호 호혜성 여부와 성적인 특성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인다.

최근에도 부모와의 애착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를 알아보는 국내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기의 이성 친구와의 애착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과 이성 친구 애착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개념적 틀



[그림 3-1]. 연구의 개념적 틀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속하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부모애착과 양육태도가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라 부모 애착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와 만족스러운 애착 관계의 형성은 이성 관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 부모 애착, 부모 양육태도 중 이성 친구 애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라 부모애착은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부모 애착은 이성 친구 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 중 이성 친구 애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무엇인가?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앞선 연구문제에 제시하였듯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연구문제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구의 틀에 맞게 연구의 가설을 먼저 제시하겠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부모의 양육태도 점수는 부모애착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부모의 자율적, 수용적, 통제적인 양육태도 점수는 의사소통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부모의 자율적, 수용적, 통제적인 양육태도 점수는 신뢰감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부모의 자율적, 수용적, 통제적인 양육태도 점수는 소외감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부모애착정도는 이성 친구 애착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부모애착정도는 이성 친구 의존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부모애착정도는 이성 친구 안정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부모애착정도는 이성 친구 친밀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의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시의 강북에 소재하는 중학교와 남·여 고등학교에서 남·여 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는 S중학교 1학년 250명, S남·여 고등학교 1학년 300명으로 설문에 응한 학생 중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거나 하나의 척도에서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아 척도별 점수가 산출되지 않은 대상자 55명을 제외한 495명 중에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123명을 제외한 37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5.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과 애착의 관계, 애착과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척도를 이용하였다.

1) 청소년기 애착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10~20세를 대상으로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를 수정한 개정본 (IPPA-R)을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척도로 구성된 원척도를 수정하여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IPPA-R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IPPA와 차이가 있다. (1) ‘부

모에 대한 애착’ 대신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2) 28문항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나 자신밖에 의지할 수 없다’, ‘요즘 나는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의 3문항을 삭제하여 문항수가 25문항으로 감소되었다. (3) 신뢰감과 의사소통 요인의 합산 점수에서 소외감 요인의 점수를 감하여 계산되던 애착 점수의 산출방식이 부정적인 표현의 문항들을 역산한 후 모든 문항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IPPA_R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Bowlby가 제안한 애착인물에 대한 정서의 질적 특성이나 차이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으며 유의미한 애착인물에 대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IPPA-R을 옥정(1998)이 변안,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는데, IPPA-R은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진다. 부와 모에 대한 애착 척도는 부, 모 같은 내용으로 각각 25문항이며 각 하위 차원별 문항 수는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6문항이다.

신뢰감은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나의 판단을 믿어주며 아버지, 어머니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의사소통은 아버지, 어머니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에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에 관해 묻는 문항이다. 소외감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집이나 학교에서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체 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형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되며, 총점수의 범위는 25-125점이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 모와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는 부와 모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에 대한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부 애착척도 .90, 모 애착척도 .91로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도, 소외감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87, .87, .71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도, 소외감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86, .85, .70으로 나타났다. 애착 측정도구의 3개 하위요인에 대한 문항은 다음의 <표3-1>와 같다.

< 표 3-1 > IPPA-R의 구성

부모에 대한 애착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부	모
신뢰감	10	2,3,4,5,9,13,17,20,22,24	.87	.85
의사소통	9	1,6,7,12,15,16,19,21,25	.87	.86
소외감	6	8,10,11,14,18,23	.71	.70
전체	25		.90	.91

* 역채점 문항 : 부- 3,6,8,9,10,11,14,17,18,23

모- 3,6,8,9,10,11,14,17,18,23

2)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는 Paker(1978)가 개발하고 Gamsa(1987)에 의해 수정된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송지영(1992)이 한

국형으로 개발하였다.

PBI(Parent Bonding Instrument)는 핵심적인 부모 양육 차원인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에 대한 자기-보고 측정도구로서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하여 각각 25문항씩으로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각각 평가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따로 분리하여 평정하게 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차이를 분리하여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송지영(1992)이 PBI(Parent Bonding Instrument)를 번안하여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를 제작하였으며,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원래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고적 자기보고를 통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평가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현재의 부모-자녀 관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한 허나원(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허나원(2001)은 송지영(1992)의 PBI 양육태도를 요인 분석하여 양육태도를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는데 아동을 믿고 결정을 따라가려는 부모의 태도인 자율적 태도요인, 아동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요인, 아동을 믿지 못하고 부모의 의견대로 결정을 내리는 통제적 태도요인으로 나누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고,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되며, 총점수의 범위는 25-125점이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을 하여 환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부양육태도 .89, 모양육태 .88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자율적, 수용적, 통제적 태도는 .87, .83, .75, 어머니의 자율적, 수용적, 통제적 태도는

.87, .81, .73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율적 태도와 수용적 태도, 통제적 태도 요인을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 즉, 양육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의 태도가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 표 3-2 > PBI의 구성

부모의 양육태도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부	모
자율적 태도	11	6, 17,1,5,11,2,24,4,18,12,16	.87	.87
수용적 태도	8	22,21,7,25,15,14,3,8	.83	.81
통제적 태도	6	20,9,10,19,23,13	.76	.75
전체	25		.89	.88

* 역채점 문항 : 부- 4,9,10,13,16,19,20,23

모- 4,9,10,13,16,19,20,23

3) 이성 친구 애착 척도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의 측정은 애착관계에 대한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콜린스와 리드(Collins & Read, 1990)의 개정된 성인 애착척도(RAAS: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를 한만열(2003)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래 RAAS는 긍정적 진술문 10문항과 부정적 진술문 8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정되고 이 척도에 포함된 18개의 대인

관계 문항은 요인분석에 의해 의존, 불안, 친밀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만열은 의존 문항들 중 한 개와 불안감 문항 중 두 개는 신뢰롭지 못한 문항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콜린스와 리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의존, 불안 및 친밀 차원에서 각각 .52, .68, .71, 로 보고하였고 한만열(2003)은 자신의 연구논문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각각 .55, .68, .62로 보고하였다.

여기서 ‘의존’은 이성파트너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이고 ‘불안’은 상대방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이며, ‘친밀’은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친밀해지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요인이다. 그러나 애착이라는 개념은 안정적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 당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과하였고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되며, 하위요인별로 총점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보면 신뢰, 안정, 친밀이 각각 .89, .80, .78로 나타났다. 애착척도의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은 의존과 안정, 친밀요인을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 즉,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 표 3-3 > 이성 친구 애착척도의 구성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의존	6	1,2,3,4,5,14	.89
안정	4	6,7,8,9	.80
친밀	5	10,11,12,13,15	.78
전체	15		.87

* 역채점 문항 : 1,11,12,13,15

6.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6년 12월 15일 성북구에 소재하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이해도, 신뢰도(Cronbach`s alpha), 적합성, 소요시간을 알아보았다. 예비조사 결과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부 애착 .87, 모 애착 .88, 부 양육태도 .84, 모 양육태도 .80,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은 의존, 안정, 친밀이 .78, .71, .70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예비조사 후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문지의 완성도를 위해 질문의 순서를 바꾸었다.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였다. 본 조사의 자료배부 및 회수는 2006년 12월 18일에서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절차는 사전에 설문조사협조를 요청한 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실시요령에 대해 안내를 하고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즉석에서 작성한 뒤 설문지를 직접 회수하였다.

7.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검사에서 사용된 각 질문지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의 Cronbach`s alph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 애착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변량분석(ANOVA)과 사후비교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부모와의 애착이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을 찾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나이, 경제수준, 부모의 나이,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등 총 3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나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14세)이 193명(51.9%), 고등학교 1학년(17세)이 179명(48.1%)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198명(53.2%), 여자가 174명(46.8%)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매우 잘 사는 편이라고 답한 학생이 3명(8%), 잘 사는 편이라고 답한 학생은 57명(15.3%),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은 279명(75%), 못 사는 편이라고 답한 학생은 33명(8.9%)으로 나타났다. 매우 못 사는 편이라고 답한 학생은 없었다. 아버지의 나이가 34세-38세에 속하는 학생이 9명(2.4%), 39세-43세에 속하는 학생이 94명(25.3%), 44세-48세에 속하는 학생이 178명(47.8%), 49세-53세에 속하는 학생이 78명(21.0%), 54세-60세에 속하는 학생이 13명(3.5%)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나이가 33세-36세에 속하는 학생이 13명(3.5%), 37세-40세에 속하는 학생이 111명(29.8%), 41세-45세에 속하는 학생이 161명(43.3%), 46세-50세에 속하는 학생이 76명(20.4%), 51세-56세에 속하는 학생이 11명(3%)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생은 11명(3%), 중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생은 25명(6.7%),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생은 169명(45.4%), 대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생은 142명(38.2%), 대학원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25명(6.7%)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

생은 10명(2.7%)이고, 중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생은 21명(5.6%),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생은 245명(65.9%), 대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생은 90명(24.2%), 대학원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6명(1.6%)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이 없다고 답한 학생은 11명(3%),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23명(6.2%), 서비스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49명(13.2%), 판매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53명(14.2%), 사무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134명(36.0%), 관리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24명(6.5%), 전문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17명(4.6%), 자영업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40명(10.8%), 기타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21명(5.6%)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가정주부라고 답한 학생은 176명(47.3%),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21명(5.6%), 서비스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52명(14.0%), 판매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40명(10.8%), 사무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47명(12.6%), 관리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7명(1.9%), 전문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7명(1.7%), 자영업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13명(3.5%), 기타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9명(2.4%)으로 나타났다.

<표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72)

변 수	구 분	빈도 (%)	변 수	구 분	빈도 (%)
나이	14세	193(51.9)	성별	남자	198(53.2)
	17세	179(48.1)		여자	174(46.8)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3(8.0)			
	잘 사는 편	57(15.3)			
	보통	279(75.0)			
	못 사는 편	33(8.9)			
	매우 못 사는 편	0(0.0)			
父의 나이 (평균=45.78세)	34세-38세	9(1.8)	母의 나이 (평균=42.79세)	33세-36세	13(2.8)
	39세-43세	94(25.3)		37세-40세	111(29.8)
	44세-48세	178(47.8)		41세-45세	161(43.3)
	49세-53세	78(21.0)		46세-50세	76(20.4)
	54세-60세	13(3.5)		51세-56세	11(3.0)
父의 학력	초등학교졸업	11(3.0)	母의 학력	초등학교졸업	10(2.7)
	중학교졸업	25(6.7)		중학교졸업	21(5.6)
	고등학교졸업	169(45.4)		고등학교졸업	245(65.9)
	대학교졸업	142(38.2)		대학교졸업	90(24.2)
	대학원이상	25(6.7)		대학원이상	6(1.6)
父의 직업	무직	11(3.0)	母의 직업	가정주부	176(47.3)
	단순노무직	23(6.2)		단순노무직	21(5.6)
	서비스직	49(13.2)		서비스직	52(14.0)
	판매직	53(14.2)		판매직	40(10.8)
	사무직	134(36.0)		사무직	47(12.6)
	관리직	24(6.5)		관리직	7(1.9)
	전문직	17(4.6)		전문직	7(1.9)
	자영업	40(10.8)		자영업	13(3.5)
	기타	21(5.6)		기타	9(2.4)

2.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 애착 차이검증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생활정도,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부모 애착의 차이검증을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청소년 성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4-2>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가 남학생일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88.76이었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89.29이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84.69이었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91.78이었다.

<표4-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N=372)

	성별	N	M	SD	t
부 애착	남학생	198	88.76	14.87	2.99**
	여학생	174	84.69	15.31	
모 애착	남학생	198	89.29	15.61	1.87*
	여학생	174	91.78	13.98	

*p<.05 **p<.01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 점수가 4.07점정도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 점수가 2.49점정도 높았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부:t=2.99, $p<.01$, 모:t=1.87, $p<.05$) 즉,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 애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아버지와 함께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위의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애착형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오송희(1999), 이지윤(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지은(1996), 이정수(200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애착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수경(2001)은 청소년들의 모 애착과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부 애착과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신재은(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경우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경우에는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성에 따른 애착형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치되지 않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2) 청소년의 연령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가 14세일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90.83이었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92.66이었다. 17세의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83.83이었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88.83이었다.

<표4-3>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N=372)

	나이	N	M	SD	t
부 애착	14세	193	90.83	15.27	4.84***
	17세	179	83.83	14.47	
모 애착	14세	193	92.66	14.88	2.90**
	17세	179	88.83	14.47	

p<.01 *p<.001

14세(중학생)는 17세(고등학생)보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 점수가 7.00 점정도 높았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 점수 또한 3.83 정도 높았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부:t=4.84, p<.001, 모:t=2.90, p<.01)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높게 나타나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청소년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지각정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애착이 부모에게서 또래친구, 이성 친구에게 전이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애착에 차이가 있다는 오송희(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3) 경제적 수준

자녀가 지각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본래 설문지의 유형은 ‘매우 잘 산다’, ‘잘 산다’, ‘보통이다’, ‘못 산다’, ‘매우 못 산다’로 설문지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매우 못 산다’고 답한 학생은 단 한명도 없어 제외하였다. 아버지 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매우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평균 96.00이었고, 잘산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92.37, 보통이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86.58, 그리고 못산다고 느끼는 경우에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가 79.7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매우 잘산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평균 96.66이었고, 잘산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95.89,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90.56이고, 못산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81.90이었다.

즉,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착 모두 생활정도를 잘 산다고 지각할수록 애착적도 점수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부: $F=6.97$, $p<.001$, 모: $F=8.54$, $p<.001$). 사후 검증결과 부 애착의 경우 경제적 수준을 ‘매우 잘 산다’라고 지각한 집단과 ‘못 산다’라고 지각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고, 모 애착은 ‘잘 산다’ 이상으로 지각한 집단과 ‘못 산다’라고 지각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생활수준이 어려울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소외감을 느끼면서 애착의 지각정도가 낮아지고, 반면에 생활수준이 안정적일수록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생

활정도에 따라 애착에 차이가 있다는 이지윤(2000), 지수경(200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윤은정(2001)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생활수준에 따른 부-모 애착안정성의 차이는 모의 애착안정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부의 애착안정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표4-4>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N=372)

	생활정도	N	M	SD	F	D
부 애착	매우 잘산다.	3	96.00	8.88	6.97***	b
	잘산다.	57	92.37	13.67		ab
	보통이다.	279	86.58	15.23		ab
	못산다.	33	79.73	14.45		a
모 애착	매우 잘산다.	3	96.66	7.76	8.54***	b
	잘산다.	57	95.89	13.80		b
	보통이다.	279	90.56	14.43		ab
	못산다.	33	81.90	15.95		a

***p<.001

4) 부모의 연령

부모의 연령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4-5>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4-5> 부모의 연령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N=372)

	연 령	N	M	SD	F	D
부 애착	34세-43세	103	91.19	16.03	9.40 ***	c
	44세-48세	178	86.97	14.07		b
	49세-60세	91	83.62	14.85		a
모 애착	33세-40세	126	91.57	14.23	8.07 *	c
	41세-45세	159	90.67	15.12		b
	46세-56세	87	89.66	14.86		a

* p<.05 *** p<.001

먼저, 아버지 연령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애착총점의 지각정도는 34세-43세인 경우 91.19점, 44세-48세에는 86.97점, 49세-60세에는 83.62점으로 아버지의 나이가 34-43세일 때 애착척도 점수의 평균이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부:F=9.40, p<.001).

어머니 연령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총점의 지각정도는 33세-40세인 경우 91.57점, 41세-45세에는 90.67점, 46세-56세에는 89.66점으로 어머니의 나이가 33-40세일 때 애착척도 점수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부: F=6.97, p<.001). 이는 부모의 나이가 젊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애착의 평균점수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젊은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자율적이며, 민주적이고, 친구처럼 지내려 노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오송희(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만, 이지윤(200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5)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 아버지가 고졸 이하일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85.68이었고,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 89.85 이었다. 어머니가 고졸 이상일 경우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90.48이었다. 대졸이상의 경우는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92.70이었다.

<표 4-6>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N=372)

	교육수준	N	M	SD	t
부 애착	고졸이하	205	85.68	15.08	2.56**
	대졸이상	167	89.85	16.07	
모 애착	고졸이하	276	90.48	14.67	1.11
	대졸이상	96	92.70	17.57	

**p<.01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보다 대학이상인 경우가 애착의 점수가 4.17 정도 높았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t=4.84, p<.01)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애착의 점수에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애착의 차이가 있다는 김명수(1984)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또한, 어머니의 변인에 따른 애착의 차이에 있어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김현숙(1997)의 연구와는 일치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애정적이며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 애착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한 성정자(1992)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6) 어머니의 직업유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아래의 <표4-7>에 제시되어 있다.

<표4-7>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N=372)

	직업유무	N	M	SD	t
부 애착	유	194	86.40	14.34	.78
	무	178	87.47	16.09	
모 애착	유	194	90.36	13.79	.39
	무	178	90.89	15.76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의 애착의 차이를 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최근 여성의 취업이 확대 되면서 직업을 지닌 어머니가 일반화 되는 추세에 더 이상 여성의 취업이 자녀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이 애착에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지윤

(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양정란(2004)은 출생 후 3년 동안 어머니가 직접 양육한 아동이 직업으로 인해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지 않은 아동보다 애착안정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영·유아기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청소년기의 애착에는 차이가 없었다.

3.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 애착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 애착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착의 하위요인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표4-8> 부모의 양육태도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N=372)

	부 의사소통			모 의사소통		
	B	β	t	B	β	t
자율적 태도	.46	.52***	11.46	.56	.57***	14.45
수용적 태도	.49	.33***	7.19	.38	.33***	8.10
통제적 태도	-.19	-.10**	-3.03	-.06	-.03	-1.20
	상수=2.92** F=72.18*** R ² =.60 Adj-R ² =.60			상수=1.33* F=78.02*** R ² =.64 Adj-R ² =.63		

* p<.05 ** p<.01 *** p<.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애착 중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4-8>과 같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율적 태도($\beta=.52$ p<.001), 수용적 태도($\beta=.33$,

p<.001), 통제적 태도($\beta=-.10$ p<.01)였고, 어머니에 대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율적 태도($\beta=.57$, p<.001)와 수용적 태도($\beta=.33$, p<.001)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믿고 자율적으로 양육하고, 자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취할 때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통제적인 태도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어머니의 통제적인 태도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별다른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신뢰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 애착 중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아래의 <표4-9>와 같다.

<표4-9> 부모의 양육태도가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N=372)

	부 신뢰감			모 신뢰감		
	B	β	t	B	β	t
자율적 태도	.31	.40***	8.57	.42	.46***	12.08
수용적 태도	.42	.42***	8.73	.42	.40***	9.23
통제적 태도	-.04	-.02	-.72	.03	.05	.62
	상수=7.95*** F=69.83*** R ² =.57 Adj-R ² =.57			상수=5.85*** F=73.81*** R ² =.62 Adj-R ² =.62		

*** p<.001

먼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율적 태도(β =.40, p <.001), 수용적 태도(β =.42, p <.001)였고,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또한 자율적 태도(β =.46, p <.001)와 수용적 태도(β =.40, p <.001)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자율적으로 양육하고 자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취할 때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신뢰감 역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소외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 중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아래의 <표4-10>과 같다.

<표4-10> 부모의 양육태도가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N=372)

	부 소외감			모 소외감		
	B	β	t	B	β	t
자율적 태도	.22	.45***	8.01	.18	.32***	5.65
수용적 태도	-.13	-.17***	-3.46	-.16	-.23***	-4.01
통제적 태도	.11	.10*	2.78	.08	.08	1.71
	상수=4.96*** F=24.16*** $R^2=.35$ Adj- $R^2=.34$			상수=5.09*** F=17.14*** $R^2=.28$ Adj- $R^2=.26$		

* $p<.05$ *** $p<.001$

먼저, 아버지에 대한 소외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율적 태도($\beta=.45$, $p<.001$), 수용적 태도($\beta=-.17$, $p<.001$), 통제적 태도($\beta=.10$, $p<.05$)였고, 어머니에 대한 소외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율적 태도($\beta=.32$, $p<.001$)와 수용적 태도($\beta=-.23$, $p<.00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믿고 따라갈수록, 자녀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의 의견대로 결정을 내리는 통제적인 태도를 취할 때 자녀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율적

인 태도를 취할 때 자녀는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애착형성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위에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는 자녀의 의견을 믿고 결정을 따라가려는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때, 자녀는 부모에게 애착을 갖고 있지만, 청소년은 아직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커질수록 방임과 구분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의 통제적인 태도가 소외감을 갖게 하는 것과는 달리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소외감에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했는데 이는 현 우리의 가정이 어머니가 양육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제적인 태도는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소외감에서 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면 자신의 의견을 잘 받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 - 자녀 애착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자율적인 태도, 수용적인 태도, 통제적인 태도 모두 부모에 대한 애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안정되게 애착을 형성한 자녀의 부모들은 자녀의 접근을 허용하면서 일관된 반응을 하며 민감하고 상호작용도 많이 하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자녀의 부모님들은 간섭이나 과잉자극을 보이고, 무관심하고 비 일관된 상호작용을 한다는 대부분의 양육행동과 애착 연구들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 연구결과들(이주혜, 1980; 홍계옥, 1994; 박응임, 1995; 손혜련, 1996)을 지지한다. 또한, 이지윤(2000)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아주 민감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는데, 자녀가 어머니를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애착이 높았으며 어머니

를 거부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애착이 낮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즉, 자녀가 어머니를 자율적이라 지각할수록 애착이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어머니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지윤(2000)의 연구는 본 연구의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통제적인 태도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는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용성,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 애정성, 한계설정 등이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양육행동 요인으로 보고(박성은, 1999)하고 있으며, 아동의 행동 단서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은 확고한 애착 발달의 일차적인 요소(임숙빈, 1998)라고 말하고 있다. 김효심과 노명희(1995)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양육태도나 반응들이 적절할수록 자녀는 어머니에게 신뢰감을 형성하여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반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4.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이성 친구 애착의 하위요인 의존, 안정, 친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성 친구 애착의 하위요인 중의 친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의 각 하위요인은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은 청소년의 이성 친구 애착의 친밀에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친밀을 제외하고 이성 친구 애착 하위요인 중에 의존과 안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부와 모의 애착이 이성 친구 의존에 미치는 영향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의 하위요인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애착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두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1>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의존에 미치는 영향

(N=372)

	의존					
	부			모		
	B	β	t	B	β	t
의사소통	-.06	-.12	-1.62	-.07	-.13	-1.81
신뢰감	.05	.09	1.26	.11	.20**	2.56
소외감	-.08	-.09*	-1.77	-.13	-.15**	-2.88
	상수=16.44*** F=2.96*** R ² =.11 Adj-R ² =.11			상수=15.31*** F=4.29*** R ² =.12 Adj-R ² =.12		

*p<.05 **p<.01 ***p<.001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 이성 친구 애착의 하위요인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위의 <표4-11>과 같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별 예측변인을 살펴보면, 의존에서는 부의 소외감($\beta = -.09$, $p < .05$), 모의 신뢰감($\beta = .20$, $p < .01$), 모의 소외감

($\beta = -.15, p < .05$)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모의 신뢰감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이 어머니에게 신뢰감을 더 가질수록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성 친구를 믿고 의지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와 모의 소외감은 이성 애착 하위요인 의존에 부적의 영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혼자라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이성 친구에게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안정에 미치는 영향

부모 애착 하위요인이 이성 애착 하위요인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애착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두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12>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안정에 미치는 영향

	안정					
	부			모		
	B	β	t	B	β	t
의사소통	.02	.05	.68	.01	.02	.36
신뢰감	.09	.19**	2.57	.09	.19**	2.54
소외감	-.02	-.03	-.59	-.02	-.02	-.56
	상수=11.03*** F=5.27*** $R^2=.13$ Adj- $R^2=.12$			상수=10.40*** F=6.27*** $R^2=.13$ Adj- $R^2=.13$		

** p<.01 *** p<.001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 이성 친구 애착 하위요인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위의 <표4-12>와 같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별 예측변인을 살펴보면, 안정에서는 부의 신뢰감($\beta =.19$, $p<.01$), 모의 신뢰감($\beta =.19$, $p<.01$)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신뢰감이 이성 친구에 대한 안정에 영향력

을 갖는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부모에게 신뢰감을 안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 친구에게도 신뢰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신뢰감을 안정적으로 형성한 청소년들은 이성 친구에게 자신이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신뢰감을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일수록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선 결과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Bowlby의 내적 작동 모델로 인해 부모에게 안정적으로 애착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이성 친구에게도 안정적으로 애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이성 친구와 안정된 애착 성향을 갖는 것으로 분류된 이들은 불안정하게 분류된 사람보다 부모와 좀 더 온정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보고한 Hazan과 Shaver(1978)와, 부모와 만족스러운 정서적 애착을 형성한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이성 관계에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고 보고한 Feeney와 Noller(199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강진경(2001)은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 성향을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법을 통해 연구한 결과, 현재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에 대해 지니고 있는 내적 표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조영주와 최해림(200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애착과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5.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위에서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애착에 영향을 주었으며, 부모 애착은 이성 친구 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에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청소년 성별, 청소년 연령, 경제적 수준,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모의 취업여부) 중에 이성 친구 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부모의 애착과 양육태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부모애착과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였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4-13>을 보면,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애착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r=.70$ 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하위영역, 즉 부 애착 의사소통과 모 애착 의사소통($r=.734$ $p<.01$), 부 애착 신뢰감과 모 애착 신뢰감($r=.815$ $p<.01$), 부 애착 소외감과 모 애착 소외감($r=.999$ $p<.01$), 부 자율적 태도와 모 자율적 태도($r=.780$ $p<.01$), 부 수용적 태도와 모 수용적 태도($r=.853$ $p<.01$), 부 통제적 태도와 모 통제적 태도($r=.818$ $p<.01$)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었다.

<표4-13 >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애착의 상관관계

(N=37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00											
2	.593 **	1.00										
3	-.621 **	-.626 **	1.00									
4	.734 **	.645 **	.469 **	1.00								
5	.671 **	.815 **	.547 **	.617 **	1.00							
6	.621 **	.626 **	.999 **	-.469 **	-.547 **	1.00						
7	.640 **	.698 **	.554 **	.587 **	.595 **	.607 **	1.00					
8	.675 **	.688 **	-.504 **	.562 **	.634 **	.539 **	.698 **	1.00				
9	-.095 **	-.174 **	.234 **	.116 **	.190 **	.224 **	-.193 **	-.285 **	1.00			
10	.569 **	.573 **	.492 **	.679 **	.628 **	.492 **	.780 **	.553 **	.194 **	1.00		
11	.573 **	.625 **	.475 **	.663 **	.608 **	-.475 **	.579 **	.853 **	.257 **	.648 **	1.00	
12	.082 **	.154 **	.222 **	-.185 **	-.244 **	.243 **	.185 **	.239 **	.818 **	-.206 **	-.318 **	1.00

* p<.05 ** p<.01

1. 부 애착 의사소통 2. 부 애착 신뢰감 3. 부 애착 소외감
 4. 모 애착 의사소통 5. 모 애착 신뢰감 6. 모 애착 소외감
 7. 부 자율적 태도 8. 부 수용적 태도 9. 부 통제적 태도
 10. 모 자율적 태도 11. 모 수용적 태도 12. 모 통제적 태도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4-14>와 같다.

<표4-14> 이성 친구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372)

	이성 친구 의존					
	부			모		
	B	β	t	B	β	t
나이(14세=1)	.16	.02	.41	.30	.04	.77
성별(남=1)	-.15	-.02	-.39	-.04	-.00	-.12
부모연령	-.00	-.00	-.05	-.02	-.03	-.56
부모학력(고졸이하=1)	-.04	-.00	-.12	-.39	-.07	-1.47
모취업여부(취업중=1)	-.33	-.04	-.91	-.24	-.03	-.68
경제수준	1.15	.16*	1.96	1.05	.15**	2.07
양육태도	.07	.19*	2.34	.07	.14*	1.70
애착	.09	.20**	3.17	.17	.31**	3.14
	상수=5.47*** F=2.28** $R^2=.18$ Adj- $R^2=.17$			상수=6.29*** F=2.89*** $R^2=.20$ Adj- $R^2=.20$		

* p<.05 ** p<.01 *** p<.001

먼저 이성 친구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경제수준(부: $\beta=.16$, p<.05 , 모: $\beta=.15$, p<.01), 양육태도(부: $\beta=.19$, p<.05 , 모: $\beta=.14$,

$p < .05$), 애착(부: $\beta = .20$, $p < .01$, 모: $\beta = .31$, $p < .01$)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을 어렵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보다 생활이 여유롭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이성 친구를 더 믿고 의지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청소년이 비교적 이성 친구를 믿고 의지한다고 보고한 구분석(197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 특히 이성 친구에 대한 의존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애착으로 나타나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에 부모와의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성 친구에게 의지하고 믿으려는 생각과 행동이 부모님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4-15> 이성 친구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372)

	이성 친구 안정					
	부			모		
	B	β	t	B	β	t
나이	-.81	-.14*	-2.53	-.64	-.11*	-2.04
성별(남=1)	.15	.02	.56	.18	.03	.64
부모연령	-.04	-.06	-1.09	-.02	-.03	-.66
부모학력(고졸이하=1)	-.01	-.00	-.06	-.07	-.07	-.23
모취업여부(취업중=1)	.08	.01	.29	.03	-.03	.12
경제수준	.60	.10*	2.13	.64	.11**	2.29
양육태도	.04	.08*	1.80	.05	.07*	1.79
애착	.11	.25**	2.72	.12	.27**	2.86
	상수=4.60*** F=4.37** $R^2=.22$ Adj- $R^2=.19$			상수=4.72*** F=4.39*** $R^2=.22$ Adj- $R^2=.21$		

* $p<.05$ ** $p<.01$ *** $p<.001$

<표4-15>를 보면 이성 친구 애착 하위요인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나이(부: $\beta=-.14$, $p<.05$, 모: $\beta=-.11$, $p<.05$)와, 경제수준(부: $\beta=.10$, $p<.05$, 모: $\beta=.11$, $p<.05$), 양육태도(부: $\beta=.08$, $p<.05$, 모: $\beta=.07$, $p<.05$), 애착(부: $\beta=.25$, $p<.01$, 모: $\beta=.27$, $p<.01$)이었다. 즉, 중학교 1학년(14세)이 고등학교 1학년(17세)에 비해 이성 친구에 대해

불안감을 많이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는 고등학생은 이미 부모에 대한 애착이 이성 친구에게로 전이되어 안정된 시기이지만 중학생은 부모에게서 이성 친구에게 애착전이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경제수준이 좋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이성 친구에게 더 안정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활 정도를 여유롭게 느끼는 청소년들이 이성 친구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성 친구 애착 안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부모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애착형성이 청소년들의 이성 친구에 관한 애착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표4-16> 이성 친구 친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372)

	이성 친구 친밀					
	부			모		
	B	β	t	B	β	t
나이(14세=1)	.86	.11	1.91	.74	.10	1.73
성별(남=1)	-1.76	-.23 ***	-4.37	-1.83	-.24 ***	-4.62
부모연령	.05	.06	1.08	-.02	-.02	-.35
부모학력(고졸이하=1)	.45	.06	1.13	.07	.00	.17
모취업여부(취업중=1)	-.35	-.04	-.09	-.20	-.02	-.52
경제수준	-.15	-.02	-.40	-.12	-.01	-.31
양육태도	-.02	-.04	-.53	.03	.05	.63
애착	.02	.03	.35	.02	.04	.46
	상수=4.55*** F=2.56** $R^2=.17$ Adj- $R^2=.14$			상수=6.22*** F=2.21** $R^2=.16$ Adj- $R^2=.13$		

* p<.05 ** p<.01 *** p<.001

이성 친구 애착 하위요인 친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부: $\beta = -.23$, $p < .001$, 모: $\beta = -.24$, $p < .001$)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이성 친구에게 친밀에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서 이성 친구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의지하고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남학생은 또래 친구들과 운

동, 게임 등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 상대로 연구한 김준화(2002)의 연구에서 뒷받침 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거부애착을 느끼고, 남성이 이성애에 비해 동성애에 더 높은 애착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성 친구 애착에 대해 연구한 한만열(2003)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친밀감보다는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들이 이성교제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실제 이성 교제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김혜란(200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표4-16>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372)

	이성 친구 애착					
	부			모		
	B	β	t	B	β	t
나이(14세=1)	.36	.02	.44	.40	.02	.50
성별(남=1)	-2.21	-.15**	-2.92	-2.51	-.17**	-3.42
부모연령	.01	.00	.12	-.07	-.04	-.71
부모학력(고졸이하=1)	.39	.02	.51	.55	.03	.67
모취업여부(취업중=1)	-.06	-.04	-.82	-.34	-.02	-.48
경제수준	1.90	.13**	2.64	1.80	.13**	2.54
양육태도	.19	.17*	1.85	.21	.18*	2.07
애착	.17	.22*	2.20	.32	.29**	2.92
	상수=7.62*** F=2.54** $R^2=.17$ Adj- $R^2=.14$			상수=8.67*** F=3.03*** $R^2=.19$ Adj- $R^2=.16$		

이성 친구 애착 = 의존 + 안정 + 친밀

* p<.05 ** p<.01 *** p<.001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부: $\beta=-.15$, $p<.01$, 모: $\beta=-.17$, $p<.01$), 경제수준(부: $\beta=.13$, $p<.01$, 모: $\beta=.13$, $p<.01$) 과, 양육태도(부: $\beta=.17$, $p<.05$, 모: $\beta=.18$, $p<.05$), 애착(부: $\beta=.22$, $p<.05$, 모: $\beta=.29$, $p<.01$)이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

으로 이성 친구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이성 친구에 대해 안정적으로 애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형성이 청소년의 발달과업인 이성 교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이성 친구에게 긍정적인 애착형성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신뢰감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인 애착은 전 생애 적으로 지속되며,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 발전하여 여러 발달 측면에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청소년기를 가정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 볼 때 청소년기는 또래관계와 이성 친구와의 우정형성을 맺는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이성 친구와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부모-자녀간의 애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3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 부모에 대한 애착이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양육태도, 애착 중에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율적 태도, 수용적 태도, 통제적 태도로,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으로는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보았고,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은 의존, 안정, 친밀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청소년이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이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연령에 따

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높게 나타나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이 지각한 생활정도에 따라서도 부모애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착 모두 생활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애착척도 점수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가 젊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애착의 평균점수가 높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경우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에 비해 부모애착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어머니의 학력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부모애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부모애착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 수용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모두 부모 애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는 자율적 양육태도와 수용적 양육태도였고, 아버지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부적인 영향을 갖는 반면에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의사소통에 별다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신뢰감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양육태도는 자율적 양육태도와 수용적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소외감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양육태도는 자율적 양육태도, 수용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수용적 양육태도는 소외감에 부적영향력을 갖

고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 의견을 받아들이는 양육태도를 취할 때 청소년은 소외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부모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생각과 의지대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부모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에게 의사소통과 신뢰감을 갖게 하는 변인이었지만, 소외감도 느끼게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아직까지는 부모에게 심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믿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양육하는 부모와는 달리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방임과 구분하지 못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셋째, 부모 애착은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 친구 애착을 의존, 안정, 친밀, 즉,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했으나, 이성 친구 친밀에는 부모와의 애착이 별다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아 제외하고 이성 친구 의존과 이성 친구 안정에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성 친구 애착 하위요인 의존에 부모애착의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이성 친구 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성 친구 의존에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아버지에 대한 소외감과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과 소외감이었다. 즉, 어머니에게 신뢰감을 가질수록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성 친구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소외감을 느낄수록 이성 친구에게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 친구 애착 하위요인 안정에 부모애착의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성 친구 안정에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과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었다. 즉, 청소년이 부모에게 신뢰감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게 되면 이성 친구에게도 안정적으로 신뢰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이성 친구 애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을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성 친구 의존에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경제수준과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부모애착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 친구 안정에 영향을 갖는 변인은 청소년의 연령과 경제수준,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애착이었다. 이 중에서 부모애착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성 친구 애착 하위요인 친밀에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청소년의 성별로 나타났다. 이성 친구 의존과 이성 친구 안정, 이성 친구 친밀을 모두 합친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갖는 변인은 성별과 경제수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이었다. 특히 부모애착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이성 친구에게 올바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데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결과였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기에 필수적이며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인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반영되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 원활하고 질 높은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애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편부, 편모를 제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정도가 이성 친구 애착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므로 편부, 편모인 가정과 정상가정 청소년을 비교하여 애착과 이성 친구 애착유형간의 관계와 영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애착을 측정하는 IPPA-R은 애착의 유형 중 애착 안정성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 애착유형이 이성 친구 애착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다. 이에 청소년의 애착을 유형별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낀다.

셋째,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가 부모나 또래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만큼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할 필요성을 느낀다.

넷째,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척도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자기 보고식 질문지는 애착과 같은 내면적 특성을 드러내는 주제를 평가할 때 자신을 방어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확한 청소년기의 애착 측정을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애착에 질적 분석 연구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강규영(2003).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불안과 공격행동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미경(2003). 아버지 양육태도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어머니간 애착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진경(1996).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성인기 사랑유형의 성차.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진경(2001).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진경, 정태연(2001). 사랑에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개인적 및 관계적 특성에서의 차이 :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6(1), 1-21.
- 강진경, 최혜경(2001).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14(3), 1-24.
- 강차연, 장연집(1999).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51-75.
- 교육학 사전 편찬위원회(1996). **교육학대사전**. 서울 : 대한 교육 연합회.
- 구본석(1975).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옥(198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좌절상황에서의 외별적 공격방향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경(2003). 중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

-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영혜(2000). 청소년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수정, 최순영(1995). **인간의 사회적·성격적 발달**. 학지사.
- 김주희, 강성희(1993). 전 생애 단계에 따른 외로움과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집, 7, 119-135.
- 김준화(2002). 애착대상의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과 애착의 심리적 본질.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술(1994).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진수(1990). 부모의 자녀 양육방법과 내외 통제성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199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옥, 김용미(2001). 남녀 고교생이 이성교제 단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성적폭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85-199.
- 김현주(1999).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개념과 인지양식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란(2000). 인터넷 상담사례에 나타난 청소년의 이성교제의 특성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심,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24, 103-121.
- 남상인(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 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현심(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1(1), 307-322.
- 민영순(1982). **발달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 박은경(1992).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령(2000).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의순(1997). 애착과정으로 본 한국부부의 사랑: 대부모 애착, 부부애착과 부부사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미(2003). 미혼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이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대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은(1999).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남·여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정(1996).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 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16(1), 113-131.
- 성정자(1992).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석한, 노경선 외(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학회지**, 40(4), 605-615.

손혜련(1996).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모·자간 애착유아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완주(1998). 아동-어머니 애착과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지연(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애착 및 물체영속성 개념발달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지영(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ing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지**, 31(5), 979-992

신상필(1989). 중·고등학생들의 이성교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재은(1999). 청소년의 애착 및 우정관계와 또래 괴롭힘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수정(2003). 중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미경(1998).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과 3세 유아-아버지간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정란(2004). 모의 맞벌이 여부가 자녀의 애착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송희(1999).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경희(1999). 청소년기의 자아분화정도 및 개체화 유형과 자아정체감 발달. 광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6, 17-34.
- 옥 정(1998). 청소년의 애착 안정성과 우울 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희(1991).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은희, 박성연(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만족도 :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47-162.
- 윤미선, 권혁기(2005). 어머니의 양육환경에 따른 모-자간 애착 :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 연구**, 11(1), 197-214.
- 윤은정(2001). 애착과 성취동기가 완벽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민(2005).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대구 카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은(2003).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질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이영환(199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1-20.
- 이은경(1995).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수(2006).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1992).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주혜(1980). 유아의 낮가림 및 격리불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윤(2000).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사회성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1996). 청년기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상호작용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이 자녀의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1).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정혜정(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 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47-61.
- 이희영(2004). 애착유형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 탐색.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16(1), 60-68.
- 임숙빈(1998).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 집단 아동의 행동병리 및 발달기능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희(1996). 애착유형과 사랑유형과의 관계연구: 신학생들의 사랑경험을 중심으로.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16(1), 80-97.
- 장휘숙(2002). 애착과 사랑양식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5(4), 93-111.
-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2001). **청소년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정유진(2000).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숙(1994). 자아 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승희(2003). 청소년 이성교제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영(1996). 어머니의 아동 양육방식이 5세 아동의 애착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7(1), 213-226.
- 조영주, 최해림(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2), 71-91.
- 조혜영(2000). 아버지의 양육태도, 교육수준, 직업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숙 외(1994). **아동발달심리**. 학지사.
- 지수경(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희,유가효(2000).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과학논집**, 26, 15-37.
- 하미진(2000). 중학생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만열(2003). 이성교제 상태에 따른 청소년의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상철(1997). **청소년 심리학**. 양서원.
- 허나원(2001). 아동의 우울과 애착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구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강의(1984). 제 2개별화 시기로서의 청소년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보**, 94, 395-400.
- 홍계옥(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 행동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주영(2000).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M.D.S., Blehar, M.C., Waters, E., & Wall.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Elbum.
- Armsden, G.C., & Greenberg, M.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ecker, W. C(1964) The sence of Identity : measurement and examination of correlates,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Basic Books, New York.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Basic Books, New York.
- Collins, N.L., & Read, S.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 220-222.
- David R. shaffer.(1984). Developmental psychology. 송길연(역) (2000). 발달심리학 -개정판-. 시그마프레스.
- Erikson, E.(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 Y. : Norton.
- Feeney, J. A., & Noller, P.(1991). Attachment style as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m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ishbein, M & Aizen, I.B.(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acchusetts : Addison - Wesley
- Goff, J.L.(1990). Sexual Confusion among Certain College Males. Adolescence, 25, 599-614.
- Hass(1979). Hass, A. Teenage Sexuality macmillan Publishing Co., Inc. New york, NY.
-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Schaefer, E. S. Bell, & Bayley, N(1959). Development of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95, 83-104
- Schaefer(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David G. Perry.(1987). Social Development of Human. 최상진, 최
순영 (역) (1989). 인간의 사회적 발달. 성원사.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부 록

1. 부모에 대한 애착척도
 - 1) 아버지에 대한 애착척도
 - 2) 어머니에 대한 애착척도

2.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 1) 아버지의 양육태도
 - 2) 어머니의 양육태도

3. 이성교제 애착유형척도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평소에 부모님과 이성 친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내용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각 문항 마다 꼭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시고, 귀찮더라도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이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각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설문지의 응답은 모두 합하여 일괄 통계 처리되고, 순수한 학문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전공 채진선
드림

◎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어 가면서 해당되는 곳에 0표 또는 적절한 답을 적어 주세요.

1. 나이 : (세)

2. 성 별 : ① 남 , ② 여

3. 부모님의 연령을 적어주세요.

아버지 : (세), 어머니 : (세)

4. 부모님의 교육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아버지 : (), 어머니 : ()

- ① 초등학교졸업 ② 중학교졸업 ③ 고등학교졸업
④ 대학교졸업 ⑤ 대학원이상

5.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의 생활정도는?

- ① 매우 잘 산다 ② 잘 사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못사는 편이다 ⑤ 매우 못 산다

6. 부모님의 직업을 표시해 주세요.

아버지 : (), 어머니 : ()

직업
1. 무직 또는 가정주부
2. 단순 노무직(일일 노동자, 비숙련공 등)
3. 서비스직(숙박업 종사자, 조리사, 미용사, 파출부, 청소부 등)
4. 판매직(판매관리자, 판매업,보험인,외판원 등)
5.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일반공무원, 사무관련직 종사자 등)
6. 관리직(회사나 관청의 과장 이상인 사람, 교장, 교감 등)
7. 전문직(대학교수, 변호사, 판사, 검사, 교사, 의사, 한의사 등)
8. 자영업
9.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부모님에 대한 애착 척도(IPPA-R)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부모님 각각에 대한 현재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이 문항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보 기 문 항		결코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받아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2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아버지				
		어머니				
3	나는 다른 분이 우리 아버지(어머니)였으면 좋겠다.	아버지				
		어머니				
4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5	나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아버지(어머니)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아버지				
		어머니				
6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내 감정을 들어 내뱉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어머니				
7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아버지(어머니)는 바로 알아차리신다.	아버지				
		어머니				
8	아버지(어머니)와 나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아버지				
		어머니				
9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대해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10	나는 아버지(어머니) 곁에 있으면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아버지				
		어머니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아버지(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아버지				
		어머니				
12	어떤 일에 대해 나와 이야기 할 때,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생각해 보신다.	아버지				
		어머니				
13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결정을 믿는다.	아버지				
		어머니				

14	아버지(어머니)는 아버지(어머니) 나를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아버지(어머니)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					
		어머니					
15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16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아버지					
		어머니					
17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화가 난다.	아버지					
		어머니					
18	나는 아버지(어머니)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아버지					
		어머니					
19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20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21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22	나는 우리 아버지(어머니)를 믿는다.	아버지					
		어머니					
23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24	내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의지할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25	만약 아버지(어머니)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양육태도 척도(PBI)

다음은 부모님이 평소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가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느낌이 아닌 실제로 해주시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항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보 기 문 항	결코	거의	때때로	자주	항상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1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2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3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해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4	나에게 쌀쌀하게 대한 편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5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했다.	아버지				
		어머니				
6	나에게 다정다감했다.	아버지				
		어머니				
7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8	나의 정신적 성장을 원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9	내가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했다.	아버지				
		어머니				
10	나의 개인 생활을 침범했다.	아버지				
		어머니				
11	나와 함께 대화하길 즐겼다.	아버지				
		어머니				
12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13	나를 어린애 취급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14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 했다.	아버지						
		어머니						
15	내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16	나는 원치 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17	내가 언짢은 때 기분을 풀어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18	나와 이야기를 하려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19	부모님에게 의존심을 갖게 만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20	부모님은 자신이 내 옆에 없으면 내가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여겼다.	아버지						
		어머니						
21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22	내가 원하면 되도록 밖으로 나가게 해 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23	나를 과잉보호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24	나를 칭찬해 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25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 여기서 부터는 이성교제 상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어 가면서 해당되는 곳에 0표 또는 적절한 답을 적어 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 지금까지 이성교제 경험은 얼마나 됩니까?

-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⑤ 4회 이상 (회)

◎ 지금부터는 이성교제 유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현재 이성친구가 있거나, 과거 이성교제가 있었던 분들은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어 가면서 해당되는 곳에 0표를 해주세요.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척도

	보 기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이성 친구에게 약한 면을 드러내고 의지를 하면 자존심이 상합니까?					
2	힘들 때 이성 친구는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3	이성 친구에게 의지하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4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성 친구는 항상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5	이성 친구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6	나에 대한 이성친구의 사랑이 식을까봐 걱정이 됩니까?					
7	이성친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가끔 생긴다. 맞습니까?					
8	나의 이성친구가 나로부터 떠나고 싶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가끔 생긴다. 맞습니까?					
9	나의 이성 친구는 혼연일체가 되고 싶은 나의 욕구를 부담스러워한다. 맞습니까?					
10	이성친구와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친밀해지기를 원합니까?					
11	이성친구가 간혹 당신에게 너무 집착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까?					
12	이성친구가 지나치게 스스로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계림칙하다고 생각합니까?					
13	이성친구가 너무도 스스로없이 친밀하게 굴면 불편합니까?					
14	이성친구가 당신에게 의지해오면 기분이 좋습니까?					
15	때때로 이성친구가 당신에게 강한 애착을 요구하여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s' attitudes toward nurturing their children
and attachment to parents during adolescence
on attachment to friends of the opposite sex

Chai, Jin Sun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how parents' attitudes toward nurturing their children and parent attach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affect attachment to their friends of the opposite sex. The subjects were 372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he first grade of a middle school & high school in Seoul. The data was statistically processed through T-test analysis, one-way ANOVA and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ttachment on father, mother according to their age, sex and economic levels, age of parents, educational levels of parents, mother's employment or unemployment. male students had strong attachment on father, and female students had strong attachment on mother, and the higher economic levels of the students were the stronger attachment on their father and mother.

But it prov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ttachment according to the mother's employment or unemployment.

2, The attitudes greatly affected the attachment. First, autonomous, receptive attitudes facilitated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enhanced a sense of trust as a subfactor of parent attachment.

And the variables such as autonomous, receptive and controlling attitudes as the three subfactors of the attitudes all influenced the formation of a sense of alienation among the subfactors of parent attachment.

3, Parent attachment affected attachment to friends of the opposite sex. In particular, a sense of trust which greatly affected dependence and stability as the subfactors of the attachment revealed the importance of forming a sense of trust between children and their parents.

4, The variable of parent attachment had the greatest effect on attachment to friends of the opposite sex.

In conclusion, youngsters' ages and sexes, their parents' ages and their fathers' levels of education made a difference in parent attachment. Parents' positive attitudes towards nurturing them had a stable effect on the attachment. Also, a sense of trust as a subfactor of the attachment functioned as the influential variable which enabled them to rely on their friends of the opposite sex. Among socio-demographic backgrounds, parents' attitudes toward nurturing their children and parent attachment, the variable of parent attachment had the greatest effect on attachment to friends of the opposite sex, which showed that forming attachment to parents was an important variable in youngsters' correct acquaintance with the other sex.

I expect that the findings of study will help parents to understand and guide their youngsters who now have an acquaintance with the other sex by verifying that forming stable attachment to parents functions as a variable affecting a correct acquaintance with the other sex as a developmental task during adolescence.